**욘주산만타키 폭포**

욘주산만타키 폭포는 기쿠치 계곡의 긴 산책로에서 방문자 센터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요 폭포다. 크고 작은 여러 폭포가 연이어져 하루에 흐르는 평균 수량이 43만 석(7만 8천 톤)인 데서 ‘욘주산만’(‘43만’이라는 의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강에는 돌출된 바위들이 있어 폭포 중간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욘주산만타키 폭포 부근의 산 표면에는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 전나무와 비자나무 등의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데, 이들은 따뜻한 계곡의 하류 지역에는 없는 나무들이다.